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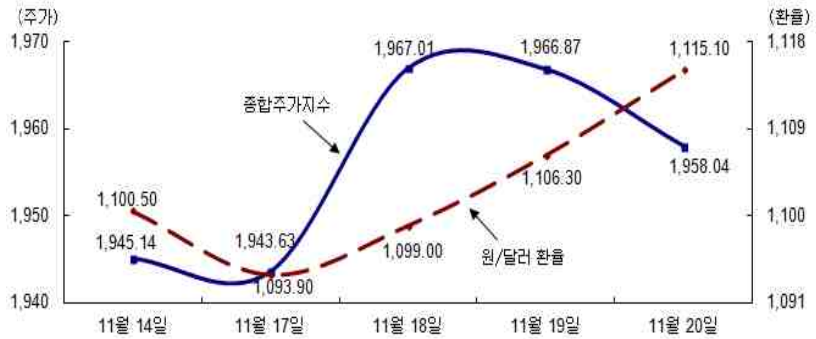
■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과 산업 전망

- 산업 성장의 멈춤(STOP)

- ① (Sandwich) 중국과 일본에 끼인 국내 산업
- ② (Traffic jam) 산업 경기 회복력의 급락
- ③ (Oversupply) 공급과잉에 직면한 장치산업(철강, 유화)
- ④ (Drop in Price competitiveness)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
- ⑤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는 전차(電車) 산업
- ⑥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양대 수주 산업(조선/건설)
- ⑦ 도약을 꿈꾸는 서비스 산업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4~11.2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과 산업 전망	1
- 부록 : 2015년 산업별 경기 전망	15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4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주 원 수석연구위원외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과 산업 전망 - 산업 성장의 멈춤(STOP)

■ 2015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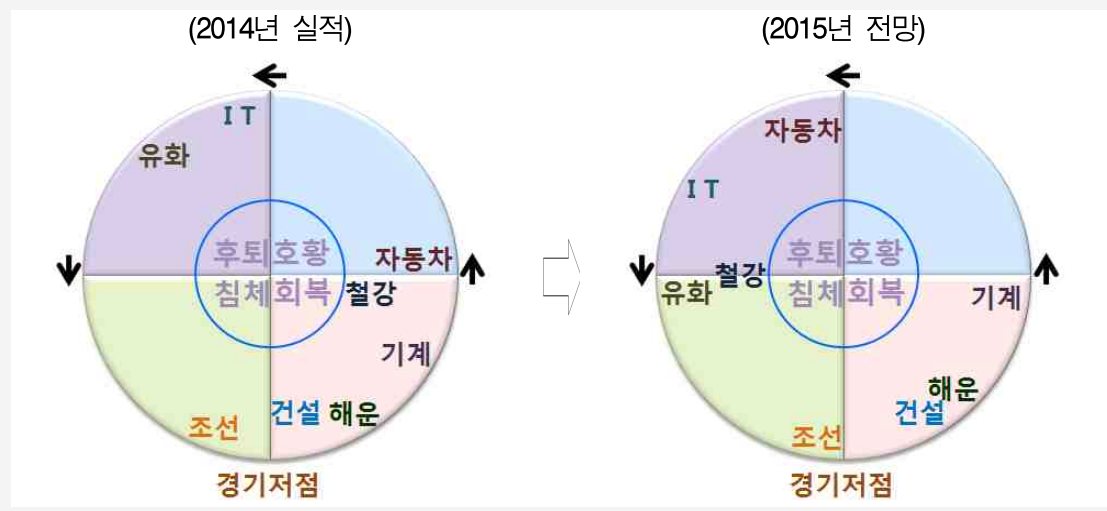
2015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2014년보다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모두 성장세가 빠르지 않아 그 회복세는 상당 폭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건설업, 해운업, 기계산업은 회복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의한 민간·건축 부문 경기 회복, SOC 예산의 확대에 따른 공공·토목 부문 발주 확대 등으로 경기 전반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운업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업종 시황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기계산업은 대내외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후퇴) 자동차산업과 IT산업 경기는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은 수출 부문이 제한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은 세계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나, 스마트기기 및 가전을 중심으로 해외경쟁기업들에게 세계 및 국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 철강산업, 화학산업, 조선업은 불황 국면이 예상된다. 철강산업은 국내 철강의 주된 수요산업중 하나인 건설업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로 불황이 우려된다. 화학산업은 동북아 과잉 공급능력이 해소되기 어려워 성장세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과 중국의 공급능력 급증에 따른 시장점유율 잠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

① **(Sandwich)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인 국내 산업:** 한국 제조업은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고 중국에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제조업의 현시 비교우위지수(RCA)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낮고 중국과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7대 주력품목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4%에서 2013년 4.7%(추정치)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은 동기간 2.2%에서 11.7% 급등했고 일본도 여전히 5.3%로 우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등으로 '新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② **(Traffic jam) 산업 경기 회복력의 급락:** 2015년 내수와 외수의 확장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 주요 산업 경기의 회복 속도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건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는 가속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③ **(Oversupply) 중국발 공급과잉에 직면한 장치산업(철강, 유화):** 철강 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한국 철강 산업의 시정점유율은 2013년을 정점으로 추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2015년 철강/유화 산업의 최대 불안요인은 '차이나 리스크'로 중국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 동북아 시장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전망된다.

④ **(Drop in Price competitiveness)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경기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4년 11월 20일까지 원/100엔 환율의 누적기간평균 1,005원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 2011년 평균 1,391원 대비 약 38%의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연평균 원/100엔 환율이 950원으로 하락하면 총수출은 5.8%의 감소 압력을 받으며, 900원으로 하락할 경우 8.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철강, 유화, 기계, IT 등의 수출 감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⑤ **국내의 시장에서 고전하는 전차(電車) 산업 :** 자동차 산업은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IT/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반격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 자동차와 IT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산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⑥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양대 수주 산업(조선/건설)** : 동반 업황 부진 국면에 있었던 양대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기 방향성의 괴리가 전망된다. 건설업은 민간·건축 부문 수주 확대와 SOC 예산 증가로 장기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업은 시장의 공급과잉 지속, 중국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잠식 가속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⑦ **도약을 꿈꾸는 서비스 산업** : 서비스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한중 FTA 타결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 비교역재인 서비스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의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2015년 산업경기는 취약한 대내외 여건으로 성장세가 극히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장 구조적인 불황에 직면한 일부 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 성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의 어려움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제2의 외환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주도산업의 글로벌 시장 방어 노력과 내수 시장 점유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업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 조기 발주 및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류 확산 및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시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1. 2015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¹⁾

- 2015년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모두 성장세가 빠르지 않아 그 회복세는 상당 폭 제약될 것으로 전망

- (회복) 건설업, 해운업, 기계산업
 - 건설업: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과 SOC 예산의 확대(2014년 23.7조원에서 2015년 24.4조원) 등으로 건설 경기 전반의 회복 가능성이 높음
 - 단, 최근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빠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해운업: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업종 시황의 회복세가 전망

 - 기계산업: 대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후퇴) 자동차산업, IT산업
 - 자동차산업: 수출 시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증가세가 전망되나,
 -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 등을 반영한다면 고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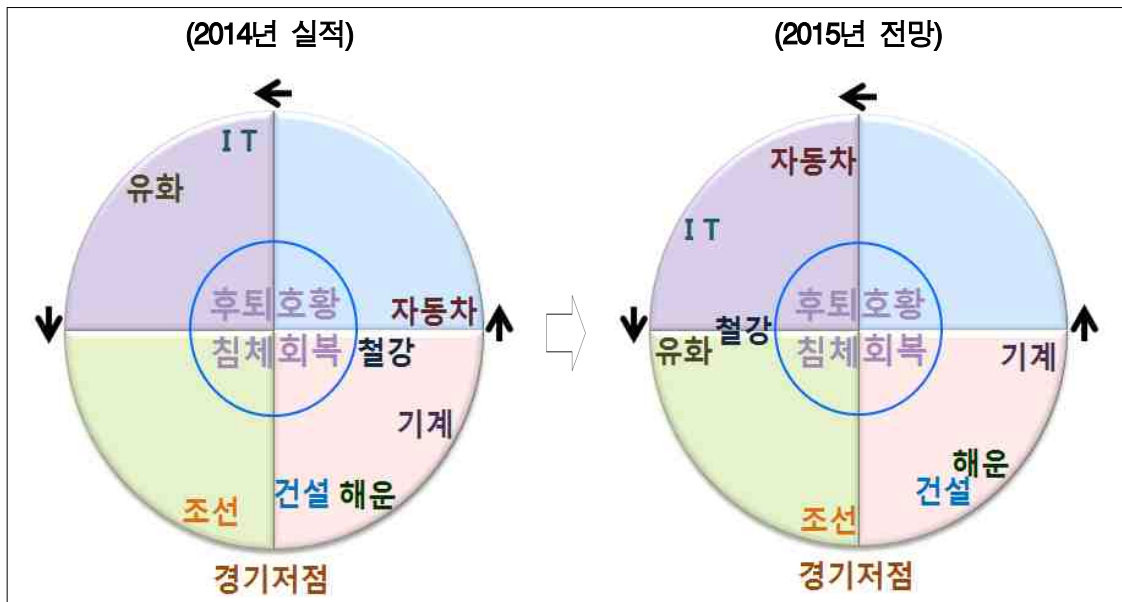
 - IT산업: 세계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나,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은 경쟁 해외기업들에게 세계 및 국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

1) 자세한 산업별 경기 전망은 “【부록】 2015년 산업별 경기 전망” 을 참조.

○ (불황) 철강, 화학, 조선

- **철강산업:** 국내 철강수요의 주된 산업인 건설업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공급과잉 문제로 경기 확장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저기술·저부가 업종의 경우 여전히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
- **화학산업:** 동북아(한중일)의 과잉 공급능력이 크게 해소되기 어려워 산업 성장세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조선업:** 글로벌적인 선박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수주가 부진하고 수출 단가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2.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

○ 2015년 산업 경기 특징의 키워드 : 산업 성장의 멈춤(STOP)

- 'STOP'은 7대 특징중 ① (Sandwich)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인 국내 산업, ② (Traffic jam) 산업 경기 회복력의 급락, ③ (Oversupply) 중국발 공급과잉에 직면한 장치산업(철강, 유화), (Drop in Price competitiveness)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을 의미함
- 이외 특징으로는 ⑤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는 전차(電車) 산업, ⑥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양대 수주 산업(조선/건설), ⑦ 도약을 꿈꾸는 서비스 산업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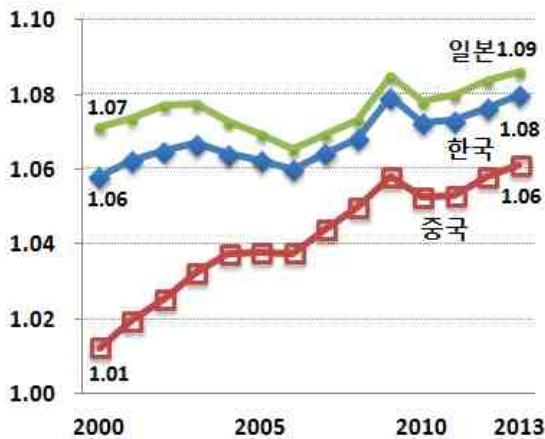
① (Sandwich)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인 국내 산업

○ 2015년 국내 산업은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고 중국에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최근 한국 제조업은 일본과의 격차는 소폭 줄였지만 중국에게는 빠르게 추격당하면서 '새로운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한중일 제조업의 현시 비교우위지수(RCA)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격차는 소폭 줄였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낮고 중국과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
 - 이에 한국의 7대 주력품목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4%에서 2013년 4.7%(추정치)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은 동기간 2.2%에서 11.7% 급등했고 일본도 여전히 5.3%로 우리보다 높음
- 2015년에도 일본의 엔저 지속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중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R&D 투자 등으로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임
 -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저 효과로 제조업 수출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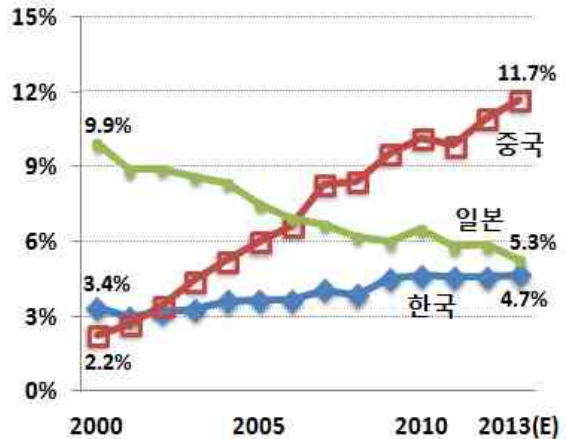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성장이 부진하여 엔저 정책이 장기화될 수 있음
 · 특히,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최근에는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보기술, 바이오, 자동차,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정책('12년 10월)을 강화하여 한국 제품의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됨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지수(RCA) 추이>



자료 : UN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HS 코드 25~97 기준임.

<한국 7대 주력품목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UN, IMF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7대 품목은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IT,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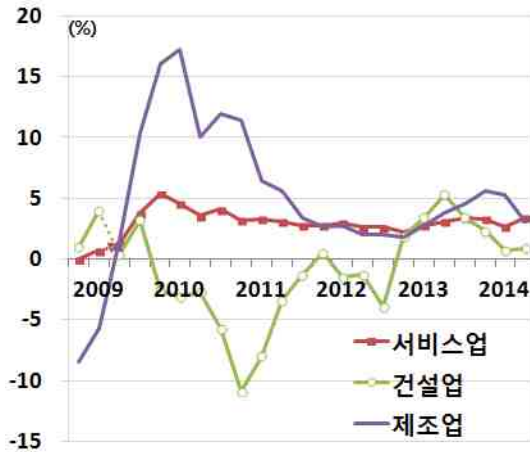
② (Traffic jam) 산업 경기 회복력의 급락

○ 2015년 내수와 외수의 확장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 주요 산업 경기의 회복 속도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경기의 저속 주행)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내수와 수출 경기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5%대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급락하면서 3분기에 서비스업보다 낮은 3%대 초반에 그침
 - 특히, 재고-출하 사이클상 2014년 3/4분기 현재 재고증가율과 출하증가율이 모두 정체되면서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진입이 지연되는 상황임
- (서비스업 경기 부진) 내수 회복기조가 예상되나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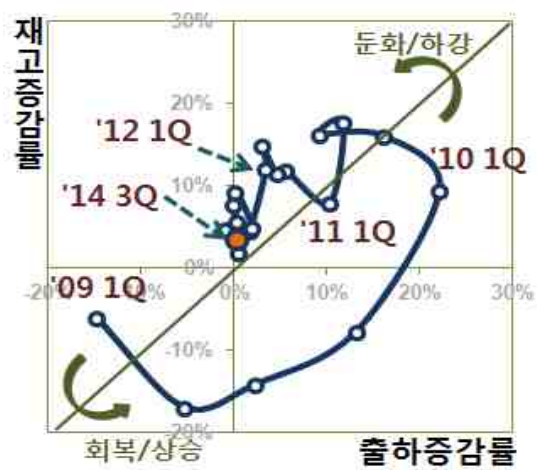
- (건설업 수주 확대 기대) 단, 건설업 경기는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최근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분기 평균 29%)함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생산 증감률>



자료 : 통계청.
 주 :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기준.
 2) 건설업은 기성액 기준.

<제조업 재고-출하 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③ (Oversupply) 중국발 공급과잉에 직면한 장치산업(철강,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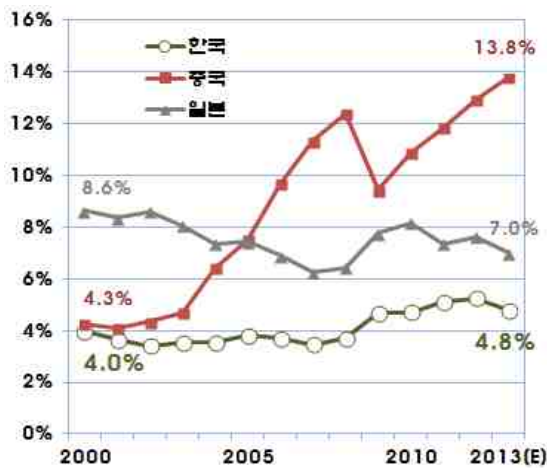
○ 철강/유화 산업은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철강 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지속
 - 중국산 철강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4.3%에서 2013년 13.8%로 급등한 반면,
 - 한국은 같은 기간 상승하였으나 2012년을 정점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 2015년 철강/유화 산업의 최대 불안요인은 '차이나 리스크'로, 중국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 동북아 시장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전망

-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기초 소재인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크게 진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 정부가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전략을 지속하고 있어 동북아 시장내 생산능력이 시장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장치산업은 특성상 생산량 조절에 경직성이 있어 업계 전반의 심각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한중일 철강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 UNComtrade.

<중국 조강 및 에틸렌제품 생산능력>



자료 : 中國鋼鐵工業協會, 日本石油化學工業協會
經濟産業省.

④ (Drop in Price competitiveness)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

-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경기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일본산 제품과 경합도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원/엔 환율 하락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11월 20일 원/100엔 환율은 930원대로 하락하여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2014년 11월 20일까지 원/100엔 환율의 누적기간평균 1,005원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 2011년 평균 1,391원 대비 약 38%의 절상률을 기록함

-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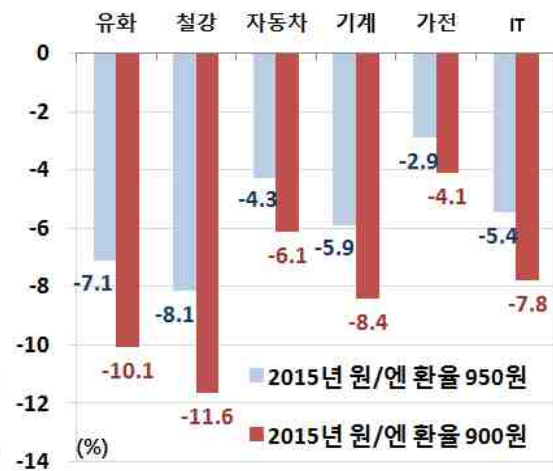
-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원/100엔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다른 모든 시장 여건에 변화가 없다면,
- 2015년 연평균 원/100엔 환율이 950원으로 하락하면 총수출은 5.8%의 감소 압력을 받으며, 900원으로 하락할 경우 8.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철강, 유화, 기계, IT 등의 수출 감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음

<최근 원/엔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원/엔 환율 하락시 업종별 수출감소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⑤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는 전차(電車)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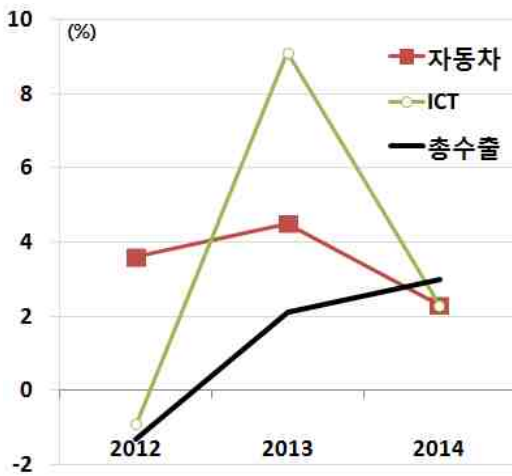
○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IT/자동차 산업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존재

- IT/자동차 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반격으로 큰 폭의 경기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수출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 부진과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 업체 간 점유율 경쟁으로 제한적인 증가세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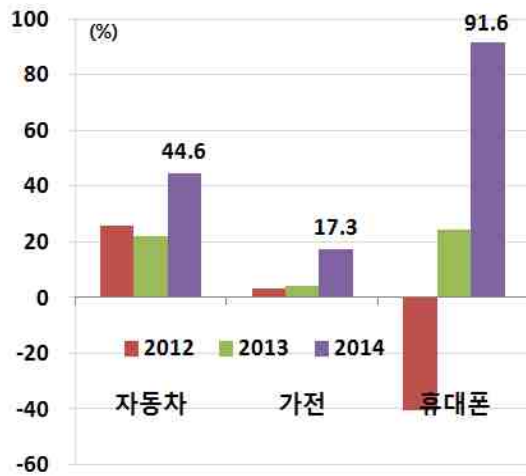
- IT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수출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외 스마트기기 등은 선진국 및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내수시장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산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5년 수입차의 국내 신규등록시장 점유율은 최소한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환율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20%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또한 IT 소비재 부문의 경우에도 국내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고전이 예상되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경우 수입산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I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 및 자동차의 수입증가율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⑥ 다른 행보를 보이는 양대 수주 산업(조선/건설)

- 그동안 동반 업황 부진 국면에 있었던 양대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기 방향성에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건설업은 민간·건축 부문 수주 확대와 SOC 예산 증가로 장기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
 -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민간 부문 건설수주액 증가율은 2013년 -1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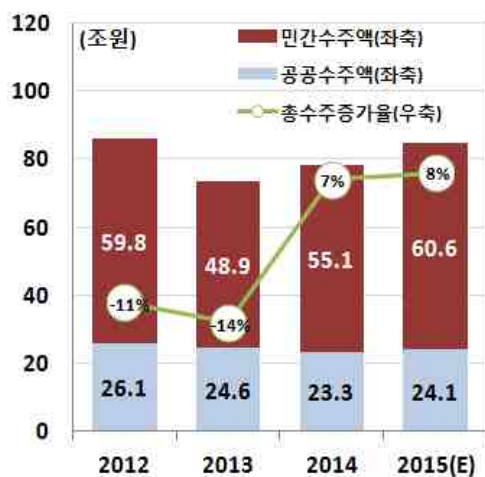
서 2014년 7%로 높아진 데 이어 2015년에도 8% 수준이 예상됨

-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정부의 안전 관련 SOC 예산 확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주 확대가 전망됨

- 반면, 조선업은 시장의 공급과잉 지속, 중국 조선업 시장잠식 가속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 2014년 중국 조선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신규수주와 수주잔량 측면 모두에서 한국을 10%p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조선업의 건조량은 2014년 934만 CGT에서 2015년 887만 CGT로 감소가 전망됨
- 2015년 신규 수주량은 2014년보다 소폭 증가한 1,365만 CGT가 예상되나, 금융위기 이전의 60% 수준에 불과함

<건설업 발주자별 수주액 전망>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조선산업 건조 및 신규수주 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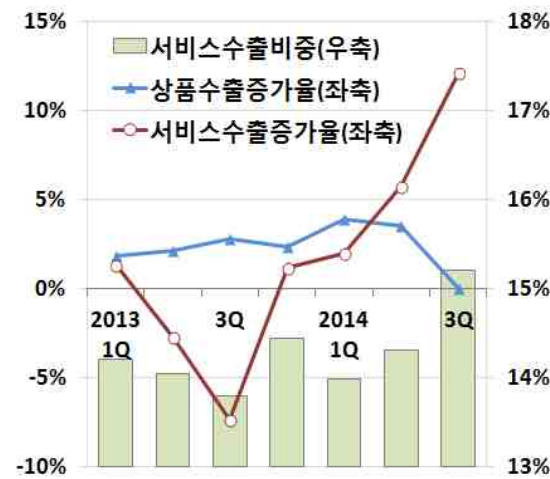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현대경제연구원.

⑦ 도약을 꿈꾸는 서비스 산업

- 전통적 비교역재인 서비스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의 거대 내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 비교역재인 서비스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3분기 상품수출(한은 국제수지 기준)은 제로 성장에 머물렀으나 서비스 수출은 12% 증가함
 -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분기 13.8%에서 1년 만에 15.2%로 급등함
-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의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현재 중국 서비스시장 규모는 3조 7,000억 달러로 한국시장의 약 7배에 달함
 - 한중 FTA의 체결로 중국의 법률, 건설, 유통, 환경, ET(엔터테인먼트), 통신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현지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비스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중 FTA의 중국측 서비스개방 내용>

분야	내용
법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합작 허용
건설	중국정부 발주공사 입찰시 한국 내의 공사실적 인정
유통	취급 금지 품목 완화
환경	하수처리 서비스 시장 개방
E T	한국기업의 49% 지분 참여 허용
통신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3. 시사점

- 2015년 산업경기는 취약한 대내외 여건으로 성장세가 극히 제약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시장 구조적인 불황 국면에 직면한 일부 산업은 경기 회복 여부가 아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산업 성장력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 통화정책은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며 재정정책에서는 내수 경기 회복력 강화 및 원화 강세 약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중 조기집행을 제고 노력이 요구됨
- 내수 회복의 관건인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내수 회복의 열쇠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은 가속화하되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둘째,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의 어려움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제2의 외환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90년대말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한 가지는 중후장대형 산업(조선, 철강, 화학)의 과잉 생산 능력에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불황 업종들의 심각성은 90년대말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업종들의 유동성,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의 근본적인 활로는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에서 찾아야 할 것임
 - 중국의 전략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그 목표인 주요 기초소재의 국산화율 제고 정책은 조선, 철강, 유화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대응하여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문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요구됨
 - 저부가·저기술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고부가·고기술 부문의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임

- 환율 변동성 리스크에 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안정화 노력이 필요함
 -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투기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여 원화 강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임

셋째, 수출 경기 주도산업의 글로벌 시장 방어 노력과 내수 시장 점유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기본적으로는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수록 연구개발투자를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부서를 핵심부서가 아닌 지원부서 정도로 간주하여 조직의 규모와 투자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음
 - 기업의 미래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노력이 필요함

- 소비시장에서 젊은 층의 구매력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디자인 능력의 향상, 혁신적인 신제품의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우리 제품의 내수시장에서의 고전은 시장의 구매력과 트렌드의 변화를 감

지하려는 노력이 없어 이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구매력 상승, 사회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르는 니즈를 반영하고 브랜드,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함
- 과거와 달리 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성능에 큰 변화가 없이 기존 제품을 일부 개량하여 만든 제품은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기 힘든 상황임
- 기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기업의 활로가 보장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임

넷째, 건설업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 조기 발주 및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건설업 수요 증대를 위해 SOC 예산의 조기집행 및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공공 발주 SOC에 대한 상반기 조기 집행,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산업경기의 회복세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또한 산업경기 회복의 걸림돌인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 적정 분양가 및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다만, 과도한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자산시장이 다시 투기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다섯째, 한류 확산 및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시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 ‘한류 3.0 시대’²⁾를 맞이하여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2) 현대경제연구원(2014),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경제주평 14-33 참조.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한류 현상을 관광 수요 촉진과 연계해야 할 것임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 소개된 유명 명소들의 단순 홍보를 넘어서 우선 국내 우수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영상 매체를 통해 소개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영상매체를 통한 한국 관광 수요를 유발시키는 전략을 활용함과 동시에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한국의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거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서비스 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함

- 국내 서비스 산업 발전의 가장 큰 한계로 작용했던 내수시장의 협소성이 한중 FTA를 계기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중국이 한국에 개방할 계획인 법률, 건설, 유통, 환경, ET(엔터테인먼트), 통신 시장에 대한 분석과 수출 및 현지 진출에 대한 전략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HRI**

【부록】 2015년 산업별 경기 전망

① 건설업	16
② IT제조업	19
③ 자동차산업	22
④ 철강산업	25
⑤ 석유화학산업	28
⑥ 조선업	31
⑦ 기계산업	34
⑧ 해운업	37

① 건설업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증가로 공공 수주가 상승 전환되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건축 부문의 회복세도 지속될 전망

- (2014년 경기 동향) 기성액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건축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수주액은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
 - (건설기성) 건설기성액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수주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확대
 - 2012년 3/4분기부터 5분기 연속 크게 감소했던 건설수주로 인해 건설기성액³⁾은 2014년 들어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 불과
 - 특히,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2014년 1/4분기 6.5%에서 3/4분기 -1.9% 둔화
 - (건설수주) 2013년 4/4분기 이후 건축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수주액은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
 - 건설수주액은 2014년 3/4분기까지 60.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
 - 분기별로 보면,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에서 2/4분기 26.1%, 3/4분기 44.3%로 증가폭이 확대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공종별 건설수주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주 : 1) 건설기성액은 불변금액,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 기준. 2)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건설기성액은 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통계청).

○ (2015년 전망)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SOC 예산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공공·민간 수주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토목) 정부의 SOC 예산이 소폭 늘어나면서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액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전환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SOC 예산은 기존 감축 계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와 노후 SOC에 대한 안전 예산의 확대로 전년대비 3% 증가한 24.4조원으로 예정
- 특히,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투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음

- (민간·건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건축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민간 비주거 건축·토목 투자도 예년 수준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정부가 201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재건축·임대사업 등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 건축 수주는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대비 10% 내외로 성장할 전망
- 다만,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투자는 대기업들이 2015년까지 약 28.4조원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회복이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개선폭은 약화될 수 있음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기준)>

(단위 : 조 원)

		2013	2014(E)	2015(E)
주체별	공공	24.6 (△6%)	23.3 (△5%)	24.1 (3%)
	민간	48.9 (△18%)	55.1 (13%)	60.6 (10%)
공종별	토목	22.9 (△17%)	22.0 (△4%)	22.4 (2%)
	건축	50.6 (△13%)	56.4 (12%)	62.3 (11%)
전체		73.5 (△14%)	78.4 (7%)	85.0 (8%)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은 제외됨.

- (주요 현안) 재건축·임대사업 활성화, 다양한 부동산개발금융 활성화 및 시설 안전관리 사업 기회 확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재건축·임대사업 활성화) 정부가 민간주택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민간의 임대주택 구입 수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및 임대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확대되고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행복주택의 착공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와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바 관련 수주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 (부동산개발금융 다양화에 대한 논의 확대) 건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어 과거 시행사 주도의 부동산 PF에 집중됐던 개발금융 지원도 부동산 신탁사 위탁개발, 리츠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임
 - 글로벌 금융 이후 건설 경기 위축과 부동산 PF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축소됐던 부동산 PF 규모가 최근 공공기관 보증을 활용하도록 변화되면서 이용이 증대되고 호응도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관련 리츠(RITZ)⁴⁾ 지원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개발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논의도 확대될 것임
 -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기회 확대) 정부의 SOC 예산 증가분이 대부분 노후 시설물 안전 부문인 만큼 관련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2015년 SOC 예산 중 안전예산을 2014년 12.4조원에서 2015년 14.6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물 및 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안전 규제 및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에, 건축 수주에 포함되는 재난예방보완시설 확충, 위험시설기능 강화 등과 관련된 사업 기회 및 안전관리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이 확대될 수 있음

4) 임대주택리츠란 주택기금이 연기금시중은행 등과 공동 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한 후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② IT 제조업

세계 IT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우리 주력 품목들의 시장 경쟁 압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부재 등으로 산업 경기 정체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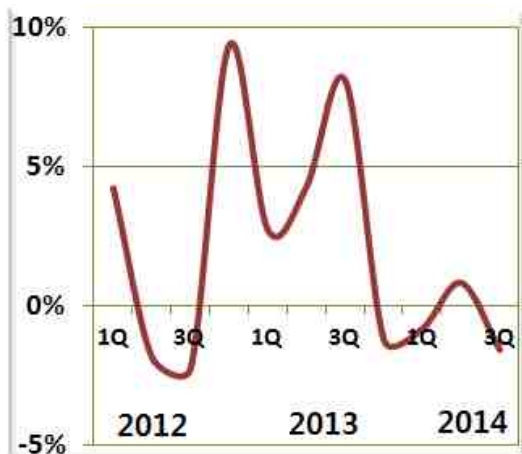
○ (2014년 경기 동향) 생산 정체가 지속되면서 불황 국면으로 진입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가가 정체되는 가운데 재고-출하 사이클 상 불황 국면에 진입
 - 생산 증감률은 2013년 4/4분기와 2014년 1/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4분기 0.8%로 반등을 시도하였으나 3/4분기 -1.6%로 재차 위축
 -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도 출하 및 재고증가율이 동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황 국면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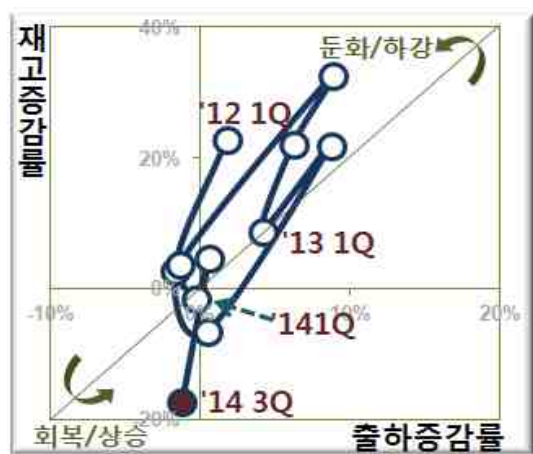
- (부문별 경기) 중국 업체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IT 제품 대부분의 성장이 위축되었고 전체 IT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
 - 중저가 태블릿PC, 웨어러블기기 등 다양한 모바일기기 성장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가 전체 반도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TV 등 중국 업체의 자국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경쟁 강도도 강화되면서 국내 대부분 IT 수출은 정체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5년 전망) 세계 IT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우리 주력 품목들의 시장 경쟁 압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부재 등으로 산업 경기 정체가 우려
- (경기 둔화) 미국 등 경기 회복에 따른 세계 시장 성장 전망에도 국내 IT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강화 등으로 생산 및 수출 모두 정체가 우려
 - 미국의 경기 회복, 주력 수출 지역인 신흥국의 완만한 성장세 등으로 세계 IT 시장은 2014년 3.2%에 이어 2015년에도 5.2% 성장(Gartner, '14.10)이 예상되나 국내 IT제조업은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스마트폰 이후 신규 성장 동력의 부재와 함께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IT 제품의 수출도 약 3%로 성장 정체가 우려⁵⁾
- (부문별) 반도체의 성장세는 견조하겠으나 디스플레이 패널의 회복세 미약, 스마트 기기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체 IT 산업의 경기 개선은 어려운 상황
 - 반도체 : 공급조절에 의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 패널 : 면적 대형화·고해상도화 추세의 지속, 선진 시장에서의 TV 교체 수요 등이 예상되나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스마트 기기 : 중국 업체의 내수 시장 영향력 확대 및 고가 프리미엄 제품 보조금 규모 축소, 100달러 초저가 스마트폰 등장 등으로 성장 둔화 우려

<IT제조업 전망>

	2013	2014(E)	2015(E)
생 산 (조 원)	334 (6%)	340 (2%)	349 (2%)
수 출 (억 달러)	1,694 (9%)	1,727 (2%)	1,770 (3%)
수 입 (억 달러)	808 (4%)	856 (6%)	913 (7%)

자료 : 실적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기기 생산은 정보통신방송기기 생산을 의미.

5) 한편, IT기기 수출의 50%를 점유하는 중국과의 FTA타결은 주요 IT 제품이 대부분 무관세이거나 관세율이 낮아 IT 수출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주요 현안) 모바일 OS 경쟁 재점화, 인도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개화 등이 I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모바일 OS 경쟁 재점화) 안드로이드와 iOS 외의 제3의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모바일 OS 전쟁이 재점화
 - 중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새로운 OS(모바일 운영체제) 채택이 증가하면서 안드로이드와 iOS 양강 체제의 변화 조짐이 포착
 -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삼성 등의 타이젠, 리눅스 기반의 우분투터치 등 제3의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출시가 본격화
 - 해당 OS들은 중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탑재되고 있어 중저가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제3의 OS 전쟁'이 점화
 - (인도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중국을 대신할 거대 신흥시장으로 인도 시장의 성장성이 주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시작
 - 세계 스마트폰 무게중심이 보급 및 저가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주요 시장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IT업체들이 중국을 대신할 거대 신흥시장으로 인도에 집중
 - 세계 3위의 시장 규모를 갖춘 인도 시장은 이동통신 가입자 9억 명 중 70% 이상이 일반 휴대폰(피쳐폰)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주목
 -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 중인 샤오미는 인도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구글은 신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초저가 제품을 인도에서 선공개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개화) 웨어러블 기기 및 건강관리 플랫폼 출시를 토대로 스마트기기의 헬스케어 생태계 확장이 본격화
 - 웨어러블 기기, SW 개발 등 IT기술의 발전, 고령화에 따른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을 기반으로 IT와 헬스케어가 융합되는 추세
 - IT와 헬스케어의 융합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개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
 - 애플의 '헬스킷(HealthKit)', 구글의 '구글핏(Google Fit)'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독자적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며 기출시된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건강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

③ 자동차산업

엔저 등 리스크 요인에도 미국 등의 경기 회복이 수출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는 소비여력 확충 미흡, 수입차 선호도 증가 등으로 고전이 전망

○ (2014년 동향) 자동차산업은 내·외수경기 동반침체의 영향으로 상고하저 (上高下低) 양상을 보이며 회복세가 둔화

- (생산 및 재고·출하) 2014년 1분기부터 자동차 생산 및 출하는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며 3분기 현재 후퇴 국면에 근접

·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였으나 2/4분기 3.6%, 3/4분기 2.1%로 증가세가 둔화

· 출하지수 증가율은 2014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6.7%에서 1.2%로 하락한 반면, 재고지수 증가율은 29.1%에서 37.2%로 상승

- (수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도 미미한 수준

·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4년 3분기까지 224만대로 전년동기대비 0.5% 성장에 그침. 반면, 수입은 동기간 14.5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5년 전망)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는 소비여력 확충 미흡, 수입차 선호도 증가 등으로 고전기 전망

- (수출 소폭 증대) 미국 등의 경기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엔저 등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EU 및 신흥국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크나 북미 시장의 수요 회복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지역 간 경제 회복 격차가 커 글로벌 전체의 수요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메이저 완성차 업체 간 점유율 경쟁은 더욱 심화
-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시장에서 국산차의 일본차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시장점유율 하락 우려

- (내수 시장 잠식)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구매력 미흡, 수입차의 국내시장 잠식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에 그칠 전망

- 국내 경기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자동차 수요는 제한적이거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미흡,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 약화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편, 신규 등록기준 수입차 점유율이 15%를 넘어서며 국내 시장 잠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동차산업 전망>

(단위: 만대)

	2013	2014(E)	2015(E)
생 산	452 (△1%)	462 (2%)	470 (2%)
내 수	138 (△2%)	144 (4%)	149 (3%)
수 출	309 (△3%)	310 (1%)	315 (2%)
수 입	16 (20%)	20 (26%)	23 (17%)

자료 :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생산은 내수, 수출 및 재고의 합이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차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기업구조조정 지속, 고급화 전략 확산, 전기차 인프라 선점을 위한 경쟁 등이 2015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기업구조조정 지속)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장폐쇄, 감원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유럽차 업체는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 북미,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도 일시적 생산 중단, 생산 제휴, 임금인상 억제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
 - 국내 업체들 역시 국내외 저성장 기조와 원화강세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응하여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고급화 전략 확산) 중국과 인도의 중·소형차 시장 잠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메이저 업체들은 고급화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
 - 주요 업체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비중 확대, 고급 서비스 패키지 및 전용 딜러 운영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진
 - 소수의 업체들이 추구하던 고급화 전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고급차와 대중차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중국, 인도의 대중차 시장 잠식과 메이저 업체의 고급화 전략 확산에 대응하여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에 주력
 - (전기차 인프라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완성차업체, 정유업체, IT 및 전력업체 등은 충전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전개
 - 주요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기존 정유업체들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충전시간을 고려할 때 주차장 충전설비가 경쟁우위를 확보

④ 철강산업

국내외 철강 수요의 불확실성 등이 확대되고 생산 시설 감축도 진행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될 전망

○ (2014년 경기 동향) 생산,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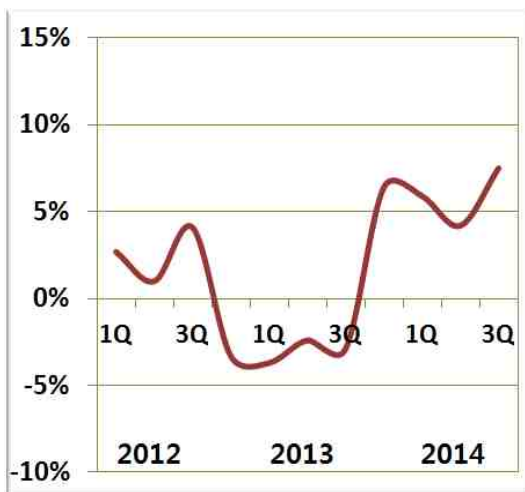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고-출하 사이클 상 경기 둔화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제기

- 철강 생산은 2013년 4/4분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4년 3/4분기까지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
- 다만 출하에 비해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고-출하 사이클상 경기 둔화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제기

- (수출)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

- 2014년 3/4분기 누적 기준 철강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0.5% 증가⁶⁾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6) MTI코드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15년 전망) 국내외 철강 수요가 둔화되고 생산 시설 감축도 진행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크게 위축될 전망
 - (수요 증가세 둔화) 글로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주요 수요 산업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철강 수요 증가는 크게 위축
 - 건설경기 회복세로 건설向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조선 및 자동차向 수요 증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 2015년 내수 성장세는 2% 수준에 그칠 전망
 - 또한 유럽·일본 등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의 성장세도 둔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3%로 둔화 예상
 - (공급 위축) 수요 둔화와 더불어 철강 생산 시설 감축 등도 철강의 생산과 수입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
 - 수요 둔화와 더불어 국내 중견 철강사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 증가폭은 1%대로 정체될 전망
 -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합금강에 대한 수출증치세 폐지 등에 따른 중국산 저가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입량은 당분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철강산업 전망>

(단위: 만 톤)

	2013	2014(E)	2015(E)	
총수요	8,095 (△4%)	8,903 (10%)	9,100 (2%)	
	내수	5,176 (△4%)	5,688 (10%)	5,800 (2%)
	수출	2,919 (△4%)	3,215 (10%)	3,300 (3%)
총공급	8,854 (△5%)	9,189 (4%)	9,200 (0%)	
	생산	6,915 (△4%)	7,520 (9%)	7,600 (1%)
	수입	1,939 (△6%)	1,669 (△14%)	1,600 (△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

- (주요 현안) 수출 경쟁력 하락, 환태평양 FTA의 실효성 논란, 철강재 중량 허용차 개정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수출 경쟁력 하락)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산 철강재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
 - 2013년 이후 동남아, 북미에 이어 호주 등지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내려졌거나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한국의 철강 수출 난항 지속이 예상
 - 또한 국내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산 철강재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
 - (환태평양 FTA의 실효성 논란)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가 타결되었으나 이에 따른 철강 수출 확대 효과는 미지수
 - 2014년 11월 한·중 FTA가 타결됐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한국의 대중국 철강 수출에 대한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한·뉴질랜드 FTA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철강선, 중후판 등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
 - 이에 따라 환태평양 FTA 타결에 따른 즉각적인 수출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철강재 중량 허용차 개정) 정부가 철강재 중량 허용차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산업 수익성 악화 우려가 대두
 - 최근 정부는 철강재 품질 확보를 위해 철근 및 형강 허용차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
 - 허용차 개정으로 제품의 실질 중량 및 두께 기준이 상향되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더불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부 수입산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용차 개정안은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⑤ 석유화학산업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내수 증가는 제한적이고 중국 관련 리스크 확대로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황 국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경기 동향)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어 업황 부진이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2013년 소폭 회복세를 나타냈던 업황은 2014년 들어 생산, 출하, 재고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둔화 국면에 재진입

- 2013년 4/4분기 회복세를 보였던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4년에 들어 크게 하락하여 3/4분기 기준 0.6%를 기록
- 3/4분기 들어 재고증가율이 상승하고 출하증가율이 하락하여 재고-출하 사이클의 둔화 국면에 위치

- (수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면서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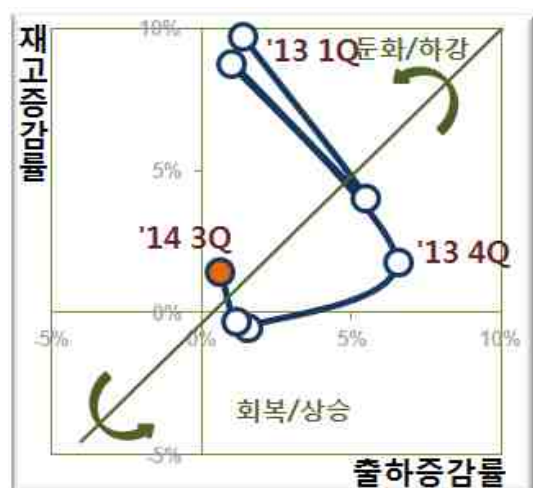
-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2014년 3/4분기까지 누적 기준 36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 특히, 수출은 2/4분기까지 감소했지만 3/4분기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5년 전망) 국내외 경기회복, 유가 하락 등 업황 개선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불황 국면 진입 가능성이 증대
 - (내수 정체) 경기부양 등에 의한 내수 진작 효과로 업황이 소폭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큰 폭의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는 주요 전방산업들의 석유화학제품 수요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단,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내수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IT와 자동차 산업 성장세가 정체될 것으로 보여 수요 증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⁷⁾
 - (수출 증가세 미약) 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회복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겠으나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제약 요인이 상존
 -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원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미국 경기 회복 등은 수출 증가에 기여하겠으나,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어 수출 증가세는 미약할 전망
 -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인한 원화가치 상승 요인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이 공존하면서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⁸⁾

<석유화학산업 전망>

(단위: 만톤)

	2013	2014(E)	2015(E)
생 산	2,172 (1%)	2,190 (1%)	2,240 (2%)
수 출	1,204 (3%)	1,210 (1%)	1,240 (2%)
수 입	99 (2%)	101 (2%)	104 (3%)
내 수	1,080 (2%)	1,090 (1%)	1,110 (2%)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7)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에 따른 엔저 현상 지속은 석유화학제품을 기본 소재로 활용하는 자동차, IT산업의 부진을 가중시킬 전망.
 8)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향상할 수 있으나,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우려.

- (주요 현안)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 본격화, 원료 다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신성장 동력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중국 리스크 확대) 對 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경제성장을 둔화, 중동에서 생산한 저가 제품의 공급 확대, 자급률 상승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점차 감소할 전망
 - 중국, 중동 국가들이 모방하기 쉬운 범용 제품 수출은 축소하고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 한편, 아세안(ASEAN) 등 성장 여력이 충분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
- (원료 다변화)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가 원유 중심에서 천연가스, 석탄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 중동 국가들은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해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북미 소재 기업은 천연가스의 일종인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중국 기업은 자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사용하는 석탄화학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천연가스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非 에틸렌 계열 제품과 같이 천연가스로는 생산할 수 없는 제품 생산에 특화 가능
- (신성장 동력 확보) 성숙기에 있는 석유화학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기술과의 다양한 융합을 모색
 - 석유화학 기업들은 바이오·나노 기술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확대
 - 예컨대 기존의 석유화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등 IT소재 제품, 친환경 타이어용 고무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

⑥ 조선업

글로벌적인 선박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수주가 부진하고 수출 단가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침체 국면이 전망

○ (2014년 경기 동향) 조선업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수주도 부진

- (선박 생산) 2013년 2/4분기 이후 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2014년 들어 감소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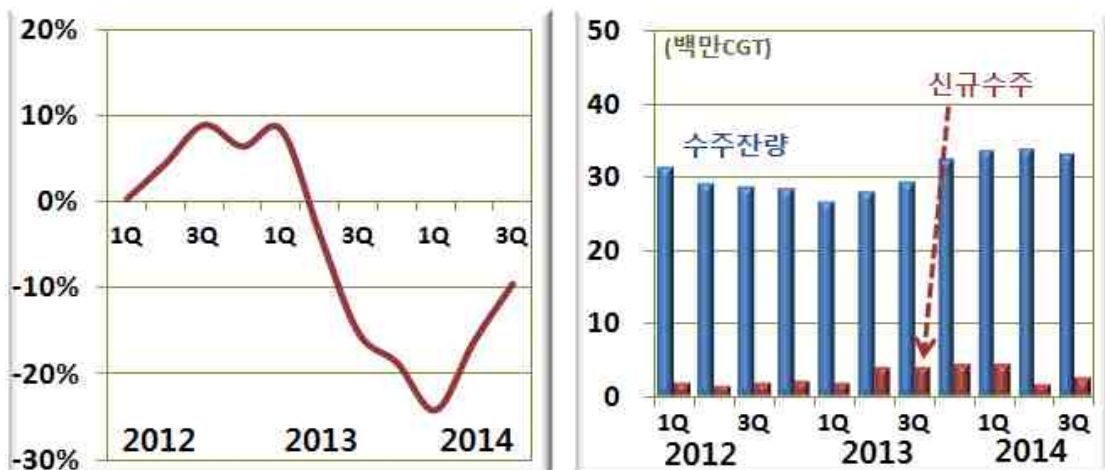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는 2014년 3분기 들어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

- (선박 수주) 글로벌 선박 공급과잉의 여파로 국내 신규수주가 감소하면서 수주잔량도 감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0개 회원사들의 2014년 3분기까지 신규수주 규모는 850만 CGT⁹⁾로 전년동기간 940만 CGT보다 약 9.6% 감소

· 2013년의 신규수주 증가로 2014년 상반기 다소 증가했던 수주잔량도 3분기 들어 전년동분기말 대비 2.0% 감소하며 3,300만 CGT를 기록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국내조선사의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 :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수주잔량 및 신규수주량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 기준¹⁰⁾.

9)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10) 2014년 4월 가입한 신규 회원사의 실적은 수주잔량의 경우 2014년 2분기부터 신규수주는 2014년 1분기부터 포함.

- (2015년 전망) 글로벌적인 선박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수주가 부진하고 수출 단가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침체 국면이 전망
 - (신규 수주 부진) LNG선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벌크선 및 해양플랜트 발주 감소로 전체 수주량은 부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신규 수주량은 2014년보다 소폭 증가한 1,365만 CGT가 예상되나 금융위기 이전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벌크선 공급과잉 지속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생산업체들의 해양 플랜트 투자여력 축소 등으로 벌크선 및 플랜트 발주 감소가 예상
 - (건조량 감소)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수주 감소 등의 여파로 건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수주 감소, 선가 하락 등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건조 여력이 하락
 - 선박 건조 기간이 통상 2~3년임을 감안한다면 2012~2013년 부진했던 수주의 영향으로 2015년 건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소폭 확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과 더불어 선가 상승기에 수주된 물량들이 인도되면서 선박 수출은 증가세가 전망
 -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와 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2013년 하반기 수주 물량이 2015년부터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선박 수출 증가세가 전망

<조선업 전망>

	2013	2014(E)	2015(E)
신규수주량 (만 CGT)	1,369 (91%)	1,300 (△5%)	1,365 (5%)
건조량 (만 CGT)	1,004 (△14%)	934 (△7%)	887 (△5%)
수출규모 (억 달러)	372 (△7%)	390 (5%)	417 (7%)

자료 : 수주량과 건조량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 합계 기준, 수출규모는 전체 선박수출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확대, 한중일 조선업계의 경쟁 심화, 해양플랜트 부문 역량 강화 추진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확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및 수출 사업에 대한 추가 승인시 LNG선 수요가 크게 확대
 - 미국 정부는 전략물자인 천연가스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최근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생산량 확대로 2011년부터 수출을 승인
 - 미국 에너지부는 약 5천만톤에 달하는 4건의 셰일가스 수출 프로젝트를 승인을 한 상태이며 2015년 상반기 추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 셰일가스 수출 시점인 2017년에 맞추어 2015년부터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승인시 발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중일 조선업계의 경쟁 심화) 중국의 자국 조선업 지원 정책 및 엔저에 따른 일본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한중일간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 중국의 조선업은 규모나 기술면에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최근 노후 선박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
 - 일본 조선업계는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선박 외 일반 상선 부문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확보
 -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는 중국, 파이낸싱 조건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있어 삼국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 (해양플랜트 부문 역량 강화 추진) 조선업계의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지목 되던 해양플랜트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
 - 금융위기 이후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적으로 진출한 해양플랜트 부문은 낮은 국산화율 및 기술력으로 최근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
 - 그러나 상선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고기술·고부가 부문인 해양플랜트 부문에 대한 진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인력 양성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⑦ 기계산업

대내외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설비 투자 수요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2014년 경기 동향) 국내 설비투자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지만 내수 부진과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기계 생산은 부진하고 수출 증가도 미약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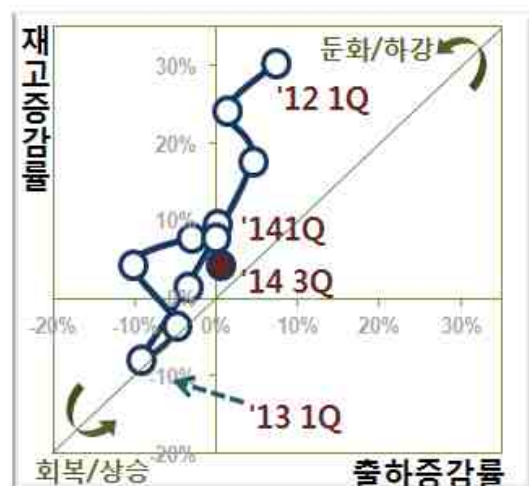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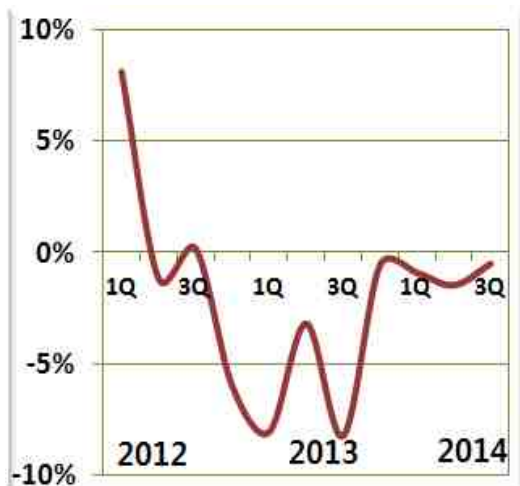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국내 기계 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재고·출하 사이클 상에서도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물러 있음

- 대내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원화 강세 등으로 기계 생산의 감소세는 지속됐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폭은 축소
- 또한, 기계의 출하 증가율이 0%대에 머물러 있고 재고의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기계산업의 경기 둔화세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고 있음

- (수출입) 對 중국 수출 부진,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모두 회복 미약

- 기계산업(조선업 제외)의 수출은 2014년 3/4분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 수입은 1.7% 증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5년 전망) 대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생산 확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강화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가 전망
 - 2015년 대내외 경제의 회복력은 미약할 것이나 정부의 경기 부양의 영향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국내 기계 수요도 소폭 증가 예상
 - 특히, 내수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기계와 ICT 간 융합 확산 등으로 노후 기계 전환 수요는 증가 전망
 - 다만, 유럽·일본 경제 회복 지연, 신흥국 성장 부진 등으로 해외 기계수요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계 생산 증가는 제약될 수 있음
 - (수출 소폭 증가) 유럽·일본 및 신흥국 성장세 약화, 원화 강세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나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
 - 미국 경제의 성장세 강화,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리쇼어링 등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확대는 기계산업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그러나 중국 수출규모 감소, 엔저 지속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기계 수출은 정체될 것으로 보임
 - (수입 증가세 유지)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개선과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기계 수입은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기계산업 전망>

	2013	2014(E)	2015(E)
생 산 (조원)	102 (0%)	103 (1%)	107 (3%)
수 출 (억달러)	433 (0%)	444 (3%)	455 (3%)
수 입 (억달러)	351 (1%)	367 (5%)	385 (5%)

자료 :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일반기계 기준이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2011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 개편으로 과거 수치와 동일하지 않음.

- (주요 현안) 정부의 중소기업 노후 설비교체 지원, 기계와 ICT 간 융합 확대 및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정부의 기업 투자 유인 강화) 정부가 기업의 설비교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 유인 정책을 펴는 동시에 '기업소득 환류세제¹¹⁾와 같은 투자 부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존재
 -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총 한도를 3조원 규모로 2014년 11월부터 자금 지원을 본격화
 - 한편,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같은 제재도 더욱 확대할 수 있음
- (기계와 ICT 간 융합 확대) 사물인터넷(IoT)의 확산은 한국이 기계와 ICT 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사물인터넷과 ICT 응용은 미래 핵심사업으로 선정됨. 특히,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기계와 ICT 융합으로 새로운 기계 생산과 제조업 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한국은 네트워크 기반이 강하고 사물인터넷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어 기계와 ICT의 융합을 통해 기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야 함
-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주요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국산 기계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하락이 우려
 - 일본·유럽 중앙은행들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이들 통화의 가치 하락은 가격 경쟁력 상승과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계산업은 엔저로 인해 수출 감소폭이 클 수 있어 국산 기계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됨

11)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및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 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⑧ 해운업

선박 공급 과잉의 제약 요인이 있으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 확대로 시황 개선이 전망

○ (2014년 경기 동향)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업 시황이 점진적으로 회복

- (생산)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보이던 외항운송업 생산지수가 2014년 3분기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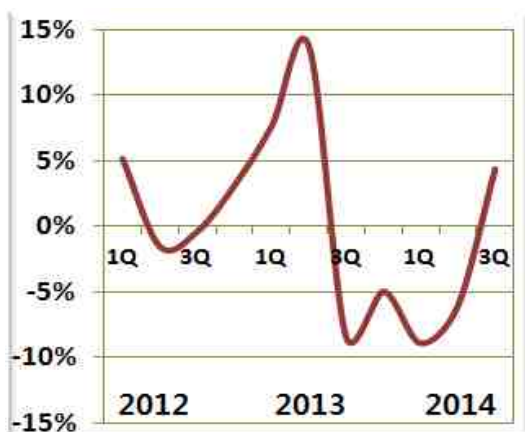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3년 3분기 -8.4%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3분기 4.4%로 플러스 전환

- (해운 시황) 컨테이너 부문과 벌크 부문 모두 업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크 부문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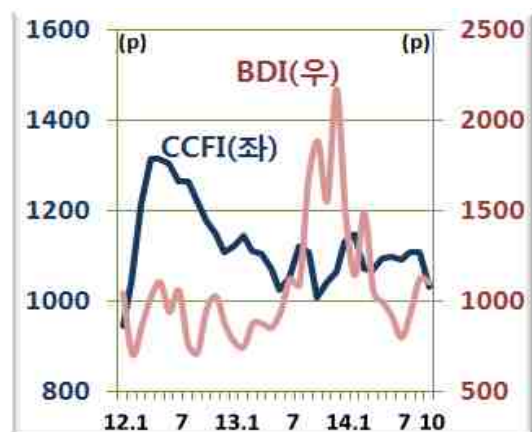
· 컨테이너 운임지수(CCFI)는 2014년 5월부터 계절적 성수기를 맞으며 소폭 상승하였으나 10월 들어 크게 하락

· 벌크선 BDI(운임지수)는 연초 1,500p 수준에서 7월 800p 수준으로 급락하였다가 10월 1,100p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CCFI 및 BDI 추이>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상해항운거래소.

주 :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CCFI 및 BDI는 월평균 기준.

- (2015년 전망) 선박 공급 과잉의 제약 요인이 있으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 확대로 시황 개선이 전망
 - (컨테이너선) 미국을 중심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에 따라 선박 공급 증가폭보다 물동량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한편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경우 운임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벌크선) 누적된 선박 공급 과잉, 중국의 벌크 화물 수입 증가 둔화 등의 리스크 요인에도 기저효과에 따른 플러스 성장이 예상
 - 신규 선박의 유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미 누적된 선박 공급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세계 최대 벌크 화물 수입국인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워 시황 개선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유조선) 대체 에너지 사용 확대 등으로 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반면 선박 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시황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LNG 등 대체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격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선박 공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운임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주요 해운지수 전망>

	2013	2014(E)	2015(E)
컨테이너선 [CCFI (1998=1,000)]	1,080 (△8%)	1,100 (2%)	1,180 (7%)
벌크선 [BDI (1985=1,000)]	1,201 (30%)	1,150 (△4%)	1,200 (4%)
유조선 [AG-동아시아(WS)]	40 (△15%)	46 (14%)	48 (5%)

자료 :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상해항운거래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2) 해운지수는 기간 중 평균치임.

- (주요 현안) 해운업에는 얼라이언스 간 경쟁 심화, 중국의 벌크 화물 수입 둔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
 - (얼라이언스 간 경쟁 심화) 글로벌 상위 선사 간 연합체인 '2M' 및 'O3'의 출범으로 얼라이언스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세계 1, 2위 컨테이너 선사인 Maersk와 MSC 간 얼라이언스 '2M'과 3위 CMA-CGM 및 7위 CSCL, 18위 UASC의 얼라이언스인 'O3'가 2015년부터 공동 운항을 실시할 계획¹²⁾
 - 이에 따라 세계 컨테이너 업계는 기존의 'CKYHE'와 'G6'와 더불어 4대 얼라이언스 체제로 재편되면서 시장내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중국의 벌크 화물 수입 둔화)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저품질 석탄 수입 규제 등으로 벌크 화물 수입 둔화가 우려
 - 중국 정부는 자국내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더욱이 철강의 주수요 산업인 건설업 경기 부진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중국의 철광석 수입 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품질 석탄에 대한 사용 규제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중국의 석탄 수입도 축소될 우려가 존재
 -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2015년에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운업계의 운영비용이 절감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및 중국의 원유 소비 둔화, 달러 강세, 원유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
 - 이에 따라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 가격이 톤당 5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선박의 운영비용이 하락
 - 2015년에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해운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나 운임 하락 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폭은 미미할 가능성 존재 **HRI**

12) Maersk, MSC, CMA-CGM는 'P3 Network' 얼라이언스 출범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6월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른 독점 폐해를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음. 그러나 2M와 O3는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아 중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2015년 산업 전망 참여 연구진

- 【총 괄】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swhan@hri.co.kr, 02-2072-6230)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 【건 설】 조호정 선임연구원 (chjss@hri.co.kr, 02-2072-6217)
- 【IT 제조】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 【자 동 차】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031-288-7971)
- 【철 강】 전해영 선임연구원 (hjeon@hri.co.kr, 031-288-7972)
- 【석유화학】 안중기 선임연구원 (joonggiahn@hri.co.kr, 031-288-7973)
- 【조 선】 조규립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 【기 계】 조호정 선임연구원 (chjss@hri.co.kr, 02-2072-6217)
- 【해 운】 조규립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1월 13일	11월 2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34	2.34	0%p
	엔/달러	85.86	98.51	105.04	115.77	118.21	2.44¥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477	1.2539	0.0062\$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653	17,719	66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7,393	17,301	-9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21	2.16	-0.05%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96.6	1,115.1	18.5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60.5	1,958.0	-2.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1월 13일	11월 2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74.24	75.60	1.36\$
	Dubai	107.99	100.38	107.88	77.56	73.60	-3.96\$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65.20	255.97	-9.2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